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시편1:1-6, 사도행전18:1-4

최정웅 원로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다. 주보에는 오직이 빠졌는데 금년 우리 교회 주제도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 주셨다. 특별히 아담이 독처한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주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다. 주석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머리에서 뼈를 떼고, 발에서 뼈를 떼지 않고 왜 하필이면 갈비뼈에서 뼈를 떼서 만들었을까. 한 번 만져보라. 남자라고 갈비뼈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들 갈비뼈가 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갈비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갈비뼈가 위도 아래에도 있지 않고 인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남성중심시대였다. 지금은 바야흐로 여성상위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정의 해체이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된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결의를 해서 아이를 죽인 비극이 있었다. 처참한 가정의 파괴를 우리가 봤다. 또 다른 사건은 김포의 시의회 의장씨가 된 사람인데, 아마 의장이 되어서 부인도 많이 활동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너무 많이 때리고 나중에는 골프채로 폭행해서 아내가 죽었다. 가정의 파괴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가정 파괴는 나중에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모가 헤어지면 누가 가장 고통 받습니까? 자녀가 가장 고통 받습니까.' 하는 복음 메세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을 총으로 쏘 죽인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들으신 대로 선진국들은 가정이 다 깨져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상처가 크겠는가. 엄마와 아빠가 헤어진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상처가 어느 날 분노조절이 안 돼서 폭발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실현하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혼할 필요도 없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이 불행해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도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속지 말기를 바란다. 집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생활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지, 다 만들어놓고 하는 가정은 불행할 수도 있다. 부호와 결혼하면 굉장히 행복한 줄 안다. 물론 다이아반지는 큰 다이아반지를 받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노예생활한다. 그 분들은 노예가 된 것이다. 인간대접을 못 받는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도 균형이 맞는 가정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적인 차이가 너무 나면 결국에는 노예된다. 절대 행복하기 어렵다. 경제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특별한 말을 표준말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쓰는 가장 보편적인 말을 표준말로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1.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떤 학자는 그 복을 예수라고 바꿔서 읽어보라고 한다. '예수 있는 사람'이라고 읽으면 맞다고 한다. 오직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을 잘 시켜야 한다.

(1)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신약의 주인공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 복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복음 있는 사람 만나라. 그것 때문에 아직 못 만나고 있다면 복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영혼도 불 가운데서 살려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복음 있는 사람 만나지 못하면 가서 복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여자가 복음가지면 남자에게 복음 전하기 쉽다. 남자가 복음이 있고 여자가 복음이 없으면 어렵다. 남자가 고집 센 것 같지만 여자가 더 어렵다. 회개하는데, 안수집사님의 부인이 교회에 안 나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돈 벌어서 전부 교회에 낸다고 한다. 그 사람은 교회 돈을 쓰는 것인데 이 부인은 자기 돈을 교회에 쓰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더욱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서 이야기했다. "집사님. 회계집사님만은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교회도 손해나고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집사직을 그만 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 나중에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남자가 믿어도 여자가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 정도로 힘든 삶을 봤다. 현재 다락방에는 여자들이 많이 남성분들이 적다. 경쟁을 심하게 해서 복음 있는 남자와 결혼해라. 복음 있으면 행복하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성경의 답으로 말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을 복음이라고 한다. 답이 안 난 사람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제일 기본 나쁜 말이 '아직도 답 안 나왔군.' 이 말이 굉장히 힘 빠지고 기분 나쁜 말이다. 참사랑 성도분들, 청년들 모두 복음으로 답 나기를 바란다. 복음으로 답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나 버렸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면 끝난 것이다. 뭐든지 이해된다. 특별히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하기를 바란다. 나이 들면서 여자들은 남성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는 여성호르몬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능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하지 말아라.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잔소리이다.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하게 돼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 때 '그리스도' 하고 끝내기를 바란다. 별것은 아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치우면 된다. '그래 저 사람 머리카락이 떨어졌구나.' 하면 되는데 반드시 한 마디 한다. '왜 이렇게 하나.' 하면서 잔소리가 된다. 보이거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먼저 치우면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해주는 사람이다. 복음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이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답 난 사람이다. 그래서 감옥 가도 괜찮고, 종으로 가도 괜찮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도 괜찮았다. 총리의 자리에 갔다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다. '시류 따라서 사는 사람.' 그렇지 않다.

(2)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축복 받기를 바란다. 다윗을 봐도 그렇다. 다윗같이 고난 받은 사람 없다. 그런데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인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했다. 신하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니다.'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기쁨 부은 종을 사람이 해치는 것이 아니다.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막았다. 나중에 사울을 죽이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단했다.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신약본문에도 나오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신약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복음으로 결혼한 사람이었다. ICC라는 주석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7페이지나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 부부를 다 알고 있었다. 전도자와 전도자가 만난 것이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로 온 것이다. 아텐에서 말하자면 실패를 하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면 처음에는 반갑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왜 안가고 버티고 있지? 언제까지 있을 거지?' 한다. 아무리 사람이 희귀한 때이지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류 목사님이 그것을 본받아서 전도자와 동행하는데, 꼭 같이 왔다. 정은주 목사님께 굉장히 고마운 것은 류 목사님 옆 방을 얻어서 바로 옆에 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 아무리 호텔이 비싸도 상관없이 옆에 계셨다. 복음의 동역자, 보호자, 식구인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가도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머무른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했냐면, 바울이 그들을 잇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 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초대교회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을 쏟아 부었냐면, 로마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조직이었다. 그 군인들이 막사를 사용하는데 그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 이 부부가 성실하게 하나가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군납업자가 된 것이다. 납품을 하려고 하나씩 얼마나 거부가 되었겠는가. 나중에는 돈으로 로마시민권을 살 정도였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배경을 만든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였다. 자랑하는 참사랑가족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소유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모수련회가 있었는데 한번 갔다 온 후에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개강세미나를 갔는데 할 말이 없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50년을 해서 이제 더 할 말도 없고, 책을 다 두고 나와 설교준비가 쉽지가 않다. "당신 입만 벌리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모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모,

진짜 사모하려거든 평신도들보다는 앞장서서 복음 소식을 암송해라. 아무리 명칭만 사모님도 한 달이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당신 것으로 만들어라. 7살도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나. 당신 것이 되면 그때부터 현장 문이 열리고 제자가 보이게 된다. 한 달 동안 투자해서 가장 기초적인 복음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사모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때부터 현상이 보인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신경질 난 것이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현상이 보이는 것이다. 그 때 답을 주면 된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되어질 때.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것처럼 하지 말고 딱 볼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구나.' 보여야 한다. '저 사람은 6가지 문제 중에서 1번이구나.' 그 자리에서 보여야 한다. 그것과 내 인생경험과 딱 맞는 것이 생각난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안 받으면 안 하면 된다. 오늘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기초를 참사랑교회가 완전히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부인이 복음을 가져버리면 그 가정에 싸움이 있을 수 없다. 남편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다툼이 있을 수 없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때 죽었었지. 저 양반이 아직도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두 번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축복한다.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다. 그의 아들도 교역자가 되고 훌륭한 감독이 되었고 그 부인은 교회의 어머니였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7명의 랩넛스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참사랑교회의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예수로 결론난 사람이 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되면 그 때부터 하나님의 오직 복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산업도 마찬가지로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발악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번엔 소가 장로님이 10억 엔을 237센터 세우는 일에 현금했다. 1999년에 류목사님과 팀들이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 현장에 갔었다. 그런데 소가 장로님 부부가 왔다. 그 때 당시 소가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부인이 다락방 멤버였는데, 오더니 최고의 골프장, 최고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큰 회사 사장인데 무릎을 꿇고 헌신을 했다. 류 목사님이 "소가씨. 당신은 장로가 되세요." 두 번씩이나 말했다.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장로가 되라고 말했다. 지금은 진짜 장로가 되어서 237센터 세우는 일에 10억 엔을 현금했다. 이유 없이 하는 것을 봤다. 이 분이 복음을 알기 전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산업이 놀랍게도 변창하는 것이다. 돈이 문제 아니고 자기가 앞장선다는 것이 굉장히 모델적이지 않은가. 오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행복한 가정환경을 주실 뿐만이 아니다. 그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닌다. 행복한 가정처럼 보인다. 그 아들이 똑똑하게 자라고 있다.

(3) 오직 복음이 되는 가정은 언약이 확실한 가정이다. CVDIP 중에 언약이 제일 먼저이지 않은가. 언약이 분명한 참사랑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언약이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된다. 내가 분명할수록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의 언약이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많은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회사, 직장, 사회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을 찾아나서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다시 말한다. 오직 복음은 무슨 말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을 말한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직도 십일조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십일조가 아니었다.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약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신앙이 좋았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일조였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다 내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한국 근세 100년사는 기독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지, 근세 100년을 기독교가 다 해준 것이다.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다.

2.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놀랍게도 오직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부른 노래이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사랑을 알았고, 받았고 확인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소망이 생겼다.' 마지막 절에 내가 붙이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찾았고, 내 할 일을 알았다.' 예수님으로 결론나면 놀랍게도 다 알게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알게 된다.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뭐든지 내가 한 것이다. 내려갈 때 강단 위 선봉기를 끄면 전기가 그만큼 덜 소모되지 않은가. 한 번도 끄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졌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밖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생각을 했다.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너 이것 해라' 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오직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사야서 43장에 명시해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이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찬양대는 그 근본 목적에 맞는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설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어렵다. 앉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훨씬 어렵다. '인생의 모든 것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것이구나.' 느꼈다.

(1)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삶의 가치를 무엇인지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돈, 권력, 많이 배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굉장한 명예를 가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캠프하면서 보는데, 얼굴들을 보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줄 알고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당당하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참사랑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 값진 일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이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아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가정. 문 꼭 걸어 잠그고 '우리만 누리자.'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나는 같은 공감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한다.

(2)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가정, 이유를 달지 않는 가정, 이유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포럼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2절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사랑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한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명예, 권세 따라가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가장 감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아는 가정, 그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인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어느 젊은 목사가 아내를 잃었다. 그리고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다. 어느 외로운 시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노랫말을 짓고 가사를 붙인 곡이다.

깊은 기도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참사랑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모신 가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이름처럼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의 50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참사랑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오직 복음이 더 확실해지게 해주시며 그 복음 때문에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